



뿌리를 찾으며

박유리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서 10살이 될 때까지는 ‘나도 우즈벡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점차 내 주변 친구들과 나의 생김새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할머니께 난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물어보았다. 할머니는 내가 ‘한국 사람, 고려인’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이후 왜 나는 한국 사람인데 우즈베키스탄에서 살고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들에 사로잡혔다. 역사책으로 고려인에 관해 접하기 시작했고, 13살 때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고려인 교육 기관에 지원했다.

이 교육 센터를 만난 것은 나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 여기서 고려인 친구를 처음 만났다. 내가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자 선생님께서는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셨다. 당시 토픽(TOPIK) 시험 점수도 없었지만, 나의 정체성에 관한 고민을 잘 알고 계셨던 원장님 덕분에 교환학생에 선발될 수 있었다. 매년 우즈베키스탄, 몽골, 중국,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보내는데, 나는 3명의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친구들과 함께 한 공업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공부하게 되었다. 학창시절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한국으로 가는 것은 대학 때쯤으로 예상했었는데, 좋은 선생님의 도움으로 생각보다 빨리 한국에 오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고려인을 돕기 위한 지역 센터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정부는 고려인 3, 4세가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규정을 점점 완화하고 있다. 나는 안산 고려인 센터에서 역사 동아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고려인의 뿌리를 찾아 나섰다. 기성세대 고려인들은 고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한국에 꼭 가야한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우리 할머니 역시 80년 넘

게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셨지만, 자식들이 언제나 한국에 가서 살기를 바라셨다. 그래서 명절 때면 제사도 지내고 한국 음식도 만들어주셨다. 고려인이 지키는 제사 중에 매년 4월 5일에 진행하는 한식이라는 제사가 있다. 이런 영향으로 나와 같은 고려인 4세대도 스스로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거나, 적어도 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라 생각한다.

고려인 센터에서 역사 탐방 동아리의 회장을 맡은 적도 있다. 내가 누군지 알려면 나의 뿌리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다. 우리는 인천 월미도에 있는 이민사 박물관과 같이 고려인의 역사와 관련된 여러 지역의 문화 탐방을 진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매년 고려인 아리랑 축제가 열리는데, 고려인들이 장기자랑을 하거나 음식을 만들어 한국인과 외국인 친구들을 초대하기도 한다. 안산은 고려인뿐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도 많이 사는 지역이라 다양한 음식점들이 많아 맛있는 것이 먹고 싶을 때 자주 찾는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외모는 한국인이었지만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상처를 받을 때도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에 있었을 때는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하더라도 외모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느꼈던 것과 정반대였다. 그럼에도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보다는 한국이 더 내 고향같이 느껴졌고 마음이 편했다. 아마 교환학생으로 공부했던 한국 고등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의 도움 덕분일 테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행복한 기억이 많지만, 항상 무언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느낌이 있었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 전에는 한 번도 접하지 못한 고향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고려인들은 한국에서도 가족과 친구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무리 낯설고 어려운 환경이어도 가족의 끈끈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얼마 전 출산을 앞둔 친구를 위한 파티에서도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대학교와 일상생활에서는 고려인, 외국인, 한국인 친구들과 다 같이 어울린다. 한국인 친구와 친해지는 것은 쉽지 않다. 대학 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어서 수업이 끝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가거나 술을 마실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외활동도 참여하느라 새로운 친구를 사귄 시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 대신 외부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나는 정체성에 관한 고민을 영상으로 풀어내는 데 관심이 있다. 인천에서 유튜브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을 수강한 뒤로 영상을 만드는 경험이 쌓여서 올해는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 이주민을 위한 영화 제작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마치 '나를 위한 영화제'처럼 운명처럼 다가왔다.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를 알아가고 친구가 되는 특별한 활동이었다. 나는 이 기회를 통해 첫 영화를 만들 수 있었다. 영화 제작 과정에서 평소에 내가 생각했던 주제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고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거리도 생겨났다. 특히 내 영화를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소통하는 경험은 잊지 못할 순간으로 마음속에 남았다.

앞으로는 영상 쪽을 더 배우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이다.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원 진학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내년에는 디아스포라 영화제에 내가 만든 작품을 출품해서 제작비 지원을 받는 것을 기대해 본다.